농촌경제에 봇물을 대려면

〈전호에서 계속〉

따라서 외국 농산물수입이 늘면 그만큼 국내 농산물가격은 떨어져 채산이 맞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밀·목화는 생산을 포기하게 됐고, 최근에는 양잠·고구마·유채·콩·옥수수등의 생산이 위축되어 가고 있다。 지금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는 무역협상이 벌어지고 있어 쇠고기, 포도주, 감자, 알팔파라는 풀사료 등을 수입해가라고 미국이 우리에게 압력을 넣고 있다。 결국 수입이 늘면늘수록 우리의 농축산물가격은 그만큼 떨어져 농업의 채산성이 없어질것은 당연하다。

둘째, 수입품목이 느니까 우리 농민이 생산할 수 있는 종류는 아무래도 제한될수밖에 없다。 그래서 농민들은 몇몇 품목생산에 집중하다 보니 가격변동에 따라 과잉생산과 과소생산을 되풀이하게 되는데, 이는 농민들을 불리한 쪽으로 몰아넣고있다。 즉 과잉생산 때는 가격폭락으로 손해를 보아 부채를 지게 되고, 과소생산 때는 가격폭등 때문에 수입을 불러일으켜 또 이익을 얻을 기회를 잃게 된다。 그러니 농가는 자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세째, 농사가 어려워지고 도시와 공장에서 일할 곳을 구하자 농촌의 청년들은 그쪽으로 대다수가 빠져나가 이제 농사는 아낙네와 노인들이 떠맡게 되었다。 말하자면 농촌노동력의 질이 떨어진 것이다。 이는 농촌의 품값을 높이는 한편, 비싼 농기계 없이는 농사를지을 수 없게 만듦으로써 빚을 얻어 농기계를 사게 만들었다。 이는 모두 농업생산비를 높여 채산성을 더욱 낮추는 작용을 하고 있다。

네째, 1983년과 84년에 걸친 엄청난 소값 파동은 소를 기르던 모든 농민에게 막대한 빚을 안기는 결과를 낳았다。

다섯째, 농가의 소비지출도 크게 늘었다。 농촌의 전기화가 전기요금의 지출을 낳았고, 누구나자식교육에는 전력을 기울임에 따라 교육비도 크게 늘었다。 의료비 부담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또 농가에서도 텔레비전,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기밥솥이 필수품으로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출도 늘었다이다。

과잉생산=가격폭락 과소생산=가격폭등

□… 너도 나도 비닐하우스 재배에 손을 대면서 조… □
▨… 기재배만으로는 수지를 맞추기가 어렵게 됐다. … ▨
□… 시장에 가면 언중 어느 때나 볼 수 있는 계절… □
▨… 작물, 그 복잡미묘한 수요량의 변화를 읽어내지… ▨
□… 못한 결과 과잉공급으로 제발을 묶는 일이 벌어… □
▨… 진다. <서기원/농협대 교수> … ▨

결국 농가는 손득원은 계속 제한되는데 소비지출은 어쩔 수 없이 늘어, 이것들이 농가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되어 온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할일이따로 있고 농민 자신들이 할 일이 따로 있다。 우선 정부가 해야 할 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수출보조금 지원도 한 방법

첫째, 생산의 과잉과 과소를 막을 수 있도록 생산조정정책을 펴야한다。 농산물마다의 국내수요량을 파악하여 필요한 양만큼을 계획생산시키는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아니고 있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과잉생산에서 오는 농민의 손실도, 과잉생산에서 오는 소비자의 부담증가도 막을 수 있다。

둘째, 가격지지(價格支持) 정책을 과감하게 펴야 한다。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식량농산물, 원료농산물, 축산물 등에는효율적인 가격지지정책을펴서 농민을 보호하고 있음을 본다。 이 정책이효율적으로 추진되면 농가소득은 안정적으로 높아진다。 세째, 유통정책도 잘펴야 한다。 대도시에더 많은 공설도매시장을 짓고 가격·유통정보를 농민에게 공급해 주어야하며, 상인들이 농간을 부릴 수 없도록 단속도해 주어야 한다。 또 포장등급 등의 개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유통자금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

농가소득을 결정하는데있어 농가경제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농가가 얼마나 쌀값이 쌀수매가격은 단계적인 상승을 도모하고, 최근에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은 쌀 소비감소에 대응해서 쌀국수·쌀과자를 개발하고 쌀로 수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일본처럼 초·중·고등학교 급식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보조·지원도 해 주어야 한다。

여섯째, 비료, 농약, 농기계등 생산자재의 가격이 비싼데서 오는 생산비 상승을 막아줄수 있도록 이들 가격에는 한정 보조해 주어야 한다。

일곱째, 최근 일본의 엔화가치 상승으로 우리 농산물중에는 국제경쟁력이 크게 강화된 품목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과·배는 물론, 꽃·돼지고기 등이 그것이다。 이들 품목은 유럽공동체국가들처럼 약간의 수출보조금만 지급하면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한 품목들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선별적으로 수출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침체된 농민의 사기를 어느정도는 높일수 있을 것이다。

주산지 형성과 직거래 체제 필요

한편 농민들도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농민들이 해야 할 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지역농민들이 공동으로 품목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주산지를 형성해야 한다。 이는 대량거래의 이점도 살릴수 있음은 물론, 농사·시장정보를 함께 얻을수 있으므로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하다。

둘째, 도시 소비자의 소비형태변화를 잘 파악한 토대위에서 작목을 선택해야 한다。 최근 도시 소비자는 4~5월 통배추를 형성하고 있으며 양상치, 샐러리, 빨간무, 갈색양배추, 중국배추, 삼엽초 등의 새로운 채소를 원하고 있다。 또 당도가 높고 공해가 없는 개량참외, 서양수박, 토마토, 멜론등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욕구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생산을 해주는 것이 소득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세째, 농산물의 재배시기를 조정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시기도 조절해야 한다。 예를들면 연중 감자는 5월에, 고구마는 8월에, 배추는 추석 직전에, 고추·마늘은 전년도에 가격이 폭락했을 때 재배하여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오이·참외등은 5월에 공급돼야 하며, 상치는 9~10월이 공급적기다。 이상은 과거 10년간의 가격통계에 근거한 것이므로 어느정도 확실한 전망이라 할 수 있다。

네째, 직거래체제도 도입해 보아야 한다。 최근 대도시에는 많은 슈퍼마켓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신선하고 깨끗하면서 질이 좋은 농산물을 원하고 있다。 만약 어느 주산지가 이들 유통기관과 공급계약을 맺어 차질없이 계속적으로 신용공급 한다면, 농민은 받을 가격을 높이면서 소비자는 값싸고 좋은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될것이다。

끝으로 농민은 과학적인 영농을 통해 생산비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 농가생활에 있어서도 분수에 넘치거나 무리한 소비는 억제해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격언도 있지 않은가。

교양시리즈

栽培教室

88新規會員을 爲하여

작약(芍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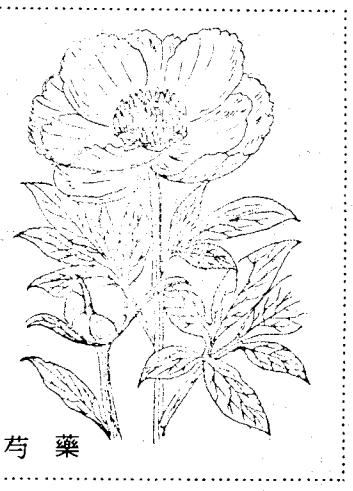
○生藥名：芍藥 Paeoniae Radix

○効用：鎭痙、鎭痛、緩和、收斂作用이 있다。 筋肉의 경련, 頭痛, 復痛, 赤痢, 止汗 등에 유효함。

1、性狀

東部아시아 原産으로여러해살이 宿根草이다。 그品種이 대단히 많으나 꽃은 거의 붉은색과 흰색이며 새로이 改良된 것중에는 노랑색도 있다。 키는 60~90cm 정도이며 잎은 어겨붙었고 두번세 갈래로 갈라진 잎은 갈풀 또는 둥근풀의 작은잎이 모여 겹잎을 이루고 있다。

5월중 하순부터 6월 사이에 꽃이핀다。 꽃받침은 3~5조각의 달걀풀이고 크기가 다르며 꽃잎은 5~8조각이다。 수술은 여러개 있는데 암술은 3~5개이며 꽃이 지고나면 열매가 맺고 그 속에 많은 씨가 들어있다。 때로는 암갈색으로말라붙어 健實하지 못하기도 하다。



芍藥

2、栽培法

1、栽培適地

中國에서는 꽃중에서 모란을 花王이라 불러 제일로 치고 芍藥은 花相이라하여 모란다음의 아반 園藝家들의 꽃으로 친다。 일그 收益이 많도록 切花用화 재배도 가능하다。

2~3개쯤 붙여 싹눈이 2~3개씩 건실하게 자라나 그 斷面에 草木灰 세레산석회를 묻어 혀서 着根이 쉽고, 될수 있으면 뿌리를 상하지 않게 붙일 것이다。 구름이 없는날에 심을것이며, 작업중 마르지 않게 주의하여 本圃에 定植한다。

이때에 種根에 잔뿌리를 많이 붙여서 심은것은 定植후 發育이 왕성하여 3년만에 정상적인 수확을 할 수 있다。 씨뿌리의 한개의 크기는 무게가 77g 정도가적당하며 芍藥 收穫후 토지이용상부득이 連作을 하고자 할때는 圃地의 消毒과 퇴비, 닭똥, 깻묵등의 有機質 肥料를 풍부하게 施用할 것이며 씨뿌리기도 비교적 큰것을 심는 것이 유리하다。

3、定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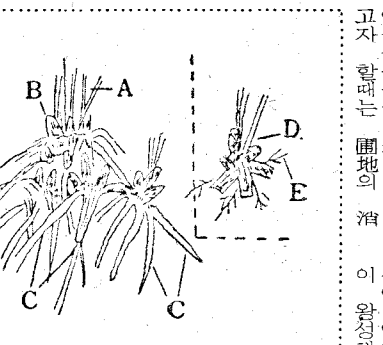
定植할 時期는 9월중·하순경이지만 될수 있으면 中北部 지방에서는 빨리 심는것이 좋다。

어느 지방에서든지 심는 時期가 늦어지면 모의 着根이나 發育이 나빠지므로 결코 適期를놓치지 말고 심을 것이다。

심을 밭은 全面에 잘 썩은 堆肥등을 살포하고 깊이 갈아 整地한 다음 1백20~1백50cm의 두독이랑사이 60cm 정도의 내외, 포기사이 45cm 정도의 간격으로 골을 치고 심거나 또한 같은 栽植距離에 한넓씩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잘썩은 퇴비 등을 충분히넣고 겉흙과 잘 섞은 후 모의 눈이 위로되게 꽂아 세워서 6cm 정도의 흙을 덮고 주위를 가볍게 밟아준다。

栽植거리는 地力이나 수확할 年數를 고려하여결정할 것이다。

77g의 씨뿌리라면 10a당 4천개까지 集約栽培를 할수있는 것이다。 間作을 할 경우에는 간작할 작물의 성질에 유의할 것이며, 이랑의 넓이는 90cm 정도로 하여 定植후 2~3년간 農作物을 간작할수 있지만 芍藥보다 키가작고 莖葉이 무성하지 않는것을 선택할것이며, 당연에 수확할 수있는 작물을 심을것이다。 芍藥은 봄에도 심을 수있으나 發根에앞서 싹이자라게되어 뿌리가뻗기 전에 잎이 생기며 증발이 왕성해져서 着根함에 체내의養分이 뿌리보다 地上部의 莖葉에 伸長에 소비되기때문에 결국 生育이 좋지 않고 때로는 여름철에말라죽기도 한다。



芍藥의 分株法

A：잎줄기 B：충실한 싹눈 C：약용뿌리 D：분주한 모종 E：잔뿌리

특히 4~6월 사이에는 乾燥期이므로 초실자로서 봄에 심을 때에는 썩지않는 퇴비등을 밑그름으로 많이넣고 물을잘 주지 않으면 대개는 실패하기 쉽다。

10a당 種根의 所要量은 1백50kg 정도이다。

4、肥培管理

정식한 늦가을에 凍害와 乾燥됨을 예방하기위하여 흙을 다소 싸위에 북돋아 주며 퇴비나 짚 등을 덮어주면 좋다。 봄 일찍 덮어준 것을 고랑에 긁어모아서 태워버리면 病虫害의 豫防도 되고 칼리비료로 이용된다。

봄이되면 싹이 나오기 시작하여 發育이 좋은것은 꽃봉오리가 생기는대로곧 따버리는 것이 좋다。

中耕 제초는 때때로할 것이나 間作物이 있을때에는 다같이의 제초할 것이며 中耕시에는 뿌리가 傷하지 않도록 주의할것이다。 비료는 밑거름으로 10a당 堆肥 1천2백kg, 過石 48kg, 깻묵 1백20~1백60kg, 닭똥 2백kg 줄 것이며, 자라는 상태를 보아 웃거름을 糞尿 1천kg 정도를 물에 타서 2~3회에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 기타 病虫害의 管理는 목단과 같다。

3、收穫·調製

定植한 후 발육이 잘된 것은 3~4년만에 수확할 수 있다。

收穫의 시기는 뿌리의 發育狀態, 病虫害의 被害 및 生藥 種根등의 시세를 고려하여 적당히 할 것이다。 보통 收穫하는 적기는 9월하순경이지만 형편에 따라서 8월 하순부터 땅이 얼기전과 다음해 봄 3월 하순까지 캘 수 있다。

그러나 봄에 수확하게 되면 種苗의 移植이 좋지 않아서 불합리한 점도 있다。 수확할 때에는 먼저 시들은 莖葉을 제거하고 한쪽에서부터 깊게-캐어서 포기의 흙을 털고 뿌리를 種苗로 잘라 지장이 없을 정도로 남기고 苗頭와 뿌리시킨 다음 뿌리를 물에 씻어 대칼로 껍질을 벗기고, 될수 있으면 빨리 햇볕에 건조한 것이 品質이 좋다。 만약 쇠불이로 된 칼을 써서 껍질을 베끼거나 日氣가 불순해서 말리는 시일이 오래되면 生藥의 빛이 좋지 못하고 검붉어 變色되거나 곰팡이가 생겨 썩기쉽고 품질가격이 떨어진다。

3~4年生으로서 포기전부를 캤을때 10a당 收穫量은 生根으로 2천~3천2백kg 정도이며, 調製 乾燥된 것은 1천kg 내외이다。

芍藥은 生藥으로서 목단보다 더 많이 쓰이는 藥材인데 아직도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양이 많으므로 國內 재배생산을 적극 장려하여야 할 유망한 藥草이다。 生藥으로서 外部가 담갈색이고 內部는 약간 담홍색이며 맛이있고 약간 단맛이 있는 肥大 充實한 것이 좋다。

※本會事情으로 8月號는 休刊 하였아오니 會員여러분께서는 諒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부白〉